

##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3인 확정



기호 3번  
황주호 공과대학 교수

- 미래를 약속하는 자랑스런 대학
-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
- 기부금 300억원으로 증액
- 취업률 75% 달성



기호 6번  
한군태 정경대학 교수

- 창의·융합·실천적 인재 양성
- 지구적 과제 수행
- 인적, 제도적, 연구설비 적시 제공
- 다양한 수입원 창출, 지출 효율화



기호 7번  
장성구 의과대학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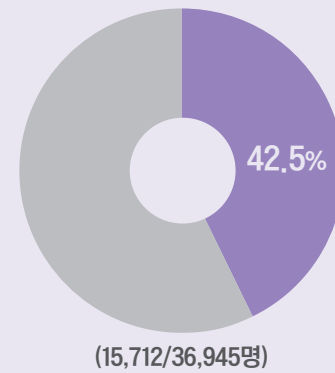
- 미래 지향적 대학 실현
- 전 학생 시 교육 제공
- 경희백년전략위원회 설치
- 구성원이 참여하는 열린 대학

지난 14일 제 6차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회의에서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개표가 이뤄졌다. 그리고 지난 15일 총추위 행정지원단이 구성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최종 후보자 3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최종 후보자는 황주호 공과대학 교수, 한군태 정경대학 교수, 장성구 의과대학 명예교수다. 각 후보자가 어느 구성원에서 추천됐는지는 법인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총추위 해석에 따라 최종 총장 선임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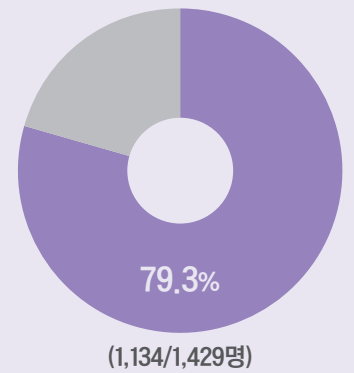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선출 구성원 투표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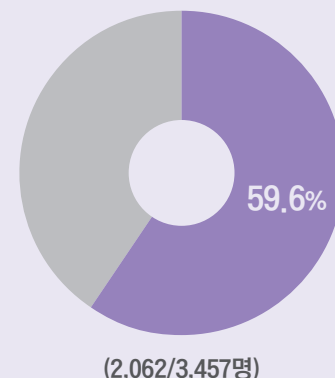
〈전체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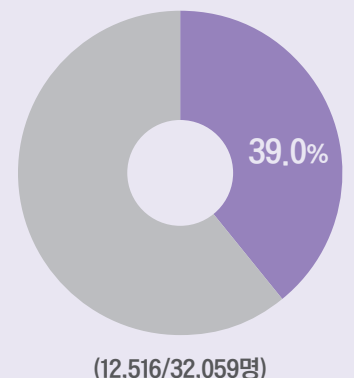
〈교원 투표율〉



〈직원 투표율〉



〈학생 투표율〉



## 제 16대 총장 후보자 3인 확정 최종 선임 차기 이사회에서

11월 13일 구성원 투표 총 투표율 42.5%로 마감  
재논의 있었던 직원 간 투표반영비율 결국 제자리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지난 14일 황주호, 한군태, 장성구 후보자가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총장 선임은 차기 이사회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른바 총장선임 프로세스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13일 총장후보추천을 위한 구성원 투표가 총 투표율 42.5%(15,712/36,945명)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구성원 별 투표율은 교원 79.3%(1,134/1,429명), 학생 39.0%(12,516/32,059명), 직원 59.6%(2,062/3,457명) 이었다. 별다른 개표 기준이 없어 투표율 높낮이를 논할 순 없지만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치르는 첫 총장후보추천 투표였던 만큼 투표율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투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행정지원단(지원단)의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에 기반 채 이뤄졌다. 때문에 구성원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원 단체별 투표 독려도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이에 최종 투표율에서 교원과 직원이 과반을 넘기고 학생도 큰 폭

의 투표율 상승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총 투표율 역시 투표 마감 날이었던 13일 오후 3시 35%에 진입, 오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5시 마감됐다.

최종 3인의 후보는 14일 열린 6차 총추위 회의에서 개표해 확정했다. 지침에 따라 최종 후보자 3인은 교수 측 최다 득표자인 제1후보, 직원·학생 측 최다 득표자인 제2후보, 교수 측 차순위 다득표자인 제3후보로 정해졌다. 단, 제1후보자와 직원·학생 측 최다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차순위 다득표자를 제2후보로 결정, 제3후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최종적으로 법인에 추천될 때에는 삭제됐다.

이 방식은 지난달 30일 마련한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대학-구성원 대표 합의문’(합의문)에 명시된 투표반영비율을 적용한 결과였다. 투표반영비율은 합의문에 따라 학생·직원 간 50:50, 직원 내부는 제1노조와 제2노조, 의료원 노조가 각각 6:2:2로 했다. 그러나 6차 총추위에서는 돌연 직원 간 투표반영비율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뤄졌다. 의료원 노조가 기존 합의했던 직원 간 투표반영비율에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과거 의료원 노조는 1안에서 2안으로 넘어가는 과정, 즉 후보추천방식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시 1안에서 합의한 직원 간 투표반영비율에도 변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의료원 노조의 서명 없이 투표반영비율 합의를 담은 합의문이 발표되자 다시금 재논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 도출에는 기존 합의했던 6:2:2의 비율이 적용됐다. 제1노조 한상 위원은 “직원노조 간 기존의 6:2:2, 6:3:1, 55:30:15, 혹은 대학 노조와 병원 노조가 각각 80:20의 투표비율을 갖고 대학 양 노조가 1:1의 비율로 80을 나눠 갖는 형태 등이 논의됐었다”며 “하지만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해 6차 총추위에서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기존 합의된 6:2:2의 투표비율을 고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필요했던 논의가 모두 끝난 뒤 최종 후보 3인이 황주호, 한군태, 장성구 후보자로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총추위 활동은 마무리된 상태다.

3면으로 이어짐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국제캠퍼스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 제 52대 총학생회 선거 본격 시작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18일부터 양 캠퍼스 제 52대 총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18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25일부터 3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19일부터 3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는 강연정(경영학 2017) 정후보, 전준필(경영학 2015) 부후보가 속한 기호 1번 Know\_How 선거운동본부(선본)와 최인성(생물학 2016) 정후보, 정경원(회계세무학 2016) 부후보가 속한 기호 2번 무빙 선본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국제캠 또한 김예솔(러시아어학 2016) 정후보, 장세훈(화학공학 2015) 부후보가 속한 기호 1번 공감 선본과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정후보, 이소영(체육학 2016) 부후보가 속한 기

호 2번 WORKHUMAN 선본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또한 국제캠에서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치기구 분리를 위한 학생 총투표도 실시된다. 투표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위원장은 “후보자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날 2020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꼭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지은(산업경영공학 2015) 위원장은 “학생 자치권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에 꼭 소중한 표를 행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과 이 위원장 모두 부후보가 속한 기호 1번 공감 선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